

2015년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 심사평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

2015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은 '14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기존 무용창작산실(구, 창작팩토리) '우수작품제작지원'에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은 사업이다. 총 16건이 접수되었고, 자격조건 미달인 1건을 제외한 15건을 대상으로 (1)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공연작품의 예술성 (3)공연단체의 역량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발레 2작품, 한국무용 2작품, 현대무용 4작품, 총 8작품이 선정되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연 이후 예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출된 영상 자료와 공연 리뷰 등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다각적인 토의를 통해 예술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둘째, 해당 단체의 예술적 역량과 구성원들의 수준을 살펴 보았다. 단체의 이전 활동 연혁은 물론, 안무가와 작품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전문성도 살펴보고 예술적 역량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재학생 구성 비율이 높은 단체보다는 전문무용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초연이후 현재까지 재공연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유통의 가능성도 함께 보았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의 목적이 우수 창작작품 지원에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로의 성장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공연 계획이 확실한지 여부와 해당 작품의 대중성, 관객의 호응도 역시 적극 반영하여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작품의 실험성과 무용계의 파급효과 등도 고려하여, 단체의 최근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해 페스티벌이나 극장 기획 공연의 공식 초청 이력도 주의하여 보았다. 무용창작산실 재공원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작품이 레퍼토리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 심의위원 일동